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유형과 일·가정양립 양상*

Fathers'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and its characteristics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이 현 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교 수 김 선 미

Research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y, Daegu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Lee, Hyun Ah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

Professor Kim, Seon-Mi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changes in a father's role from one that is work-centered to a work-family balance, analyzing the type of father'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among the typ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037 fathers of school-aged children. The survey subjects were assigned to a ratio of 1:2:1:1 for fathers who have a child in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fathers'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was a variable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work-centered, family-centered, and work-family centered. In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the fathers'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was influenced by family characteristics(the age of first child, the number of children, dual earner, and spouse support) and work characteristics(weekly working hours, work flexibility, and leaving work on time). W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through housework time, child care time, leisure time, family meals, and time spend talking with their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father's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such as first child age and spouse support, work characteristics such as weekly working hours and leaving work on time. The time distribution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father's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4132).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심의 승인을 받았음 (승인번호: 1040621-201802-HR-014-02).

** 주저자·교신저자: 이현아(E-mail: leehyun@gmail.com)

Therefore, a fathers' work-family reconciliation can be considered typified by the interaction of family and work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supporting fathers' work-family reconciliation.

Key Words : father, work and family balance, work-family reconciliation type

I. 서론

일에 몰두하던 단계에서 가정과 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최근에는 개인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은 일보다 생활에 비중이 더 큰 전환점이 된다. 일 생활 균형 확대를 목표로 1단계에는 육아휴직 급여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 신설 워라벨 우수 중소기업 육성 2단계에는 제도 확산 및 일 생활 균형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개편과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의 요구로부터 배태되었다. 2007년에 벌써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시한 국내대기업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보고서인 <경영의 새 화두: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직장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급여수준 고용안정성 승진 등을 뒤로 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1위로 꼽았다(임홍택, 2018:159). 최근에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조사한 결과에서 '일과 1,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이 가능한지를 본다'는 응답이 5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뒤이어 높은 연봉, 고용안정성, 조직문화 및 복지제도, 적성에 맞는 직무, 출퇴근의 근접성 및 용이성, 성장가능성 등 순으로 나타나(중앙일보, 2018) 일·가정양립을 중시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양립지표에서도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

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가정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43.1%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8.5%가 증가하여 42.9%로 늘었다. 남성의 경우 '일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49.9%로 여자보다는 높지만, 2년 전 61.7%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며, 상대적으로 남성의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2015년 29%에서 2017년 39%로 10%나 늘어나 남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7).

아버지역할이 '일중심'에서 '일-가정 균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아버지상의 도전에 직면한 아버지들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역할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시간 증가(이현아·김선미·이승미, 2016), 학부모로서 자녀 학교에 참여(이현아, 2014; Lee, 2019), 지역사회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참여(이현아·박철·김선미, 2017; 이현아, 2018)를 통해서 오늘날 아버지역할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 평균시간이 2014년 39분으로 1999년 30분, 2004년 31분, 2009년 35분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말의 경우 토요일, 1시간 1분, 일요일 1시간 13분으로 1999년보다 26분 늘어났다.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014년 3시간 25

분으로 1999년 4시간 1분에 비해 36분이 줄어들었다(통계청, 2016). 지난 15년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양은 여성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부가 둘 다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로 국한해서 보면 생활시간배분의 성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에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부부의 주중 노동시간은 남편은 546.8분, 아내는 412.4분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1.3배 정도 길었지만, 주중 가사시간은 남편은 17.4분, 아내는 129.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길었다. 주중 육아시간도 남편 14.9분, 아내 52.2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3.5배 많았다. 즉,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을 하는 시간은 7.4배, 육아시간은 3.5배 긴 것으로 드러났다(조성호·김지민, 2018).

이처럼 생활시간배분에서의 남녀차이는 여전히지만, 최근 아버지상의 변화와 더불어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가정양립제도는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고민하고 실제 사용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46.7% 증가한 것이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9.8% 증가하여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b) 다만,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많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전년도(6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9b).

본 연구는 아버지역할이 ‘일중심’에서 ‘일·가정 균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고,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은 아버지의 자녀연령이나 자녀수, 맞벌이여부, 배우자지지와 같은 가정의 요구와 아버지 본인이 속한 직장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유연성, 정시퇴근문화 등 근무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생활양상이 시간배분구조를 통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일·가정양립의 생활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아버지의 일·가정양립관련 연구는 크게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의 경험과 갈등을 다룬 연구(김보은 외, 2016; 김혜영 외, 2008; 배지혜·서혜영·이숙현, 2002; 송혜림, 2012; 양소남, 2013; 채화영, 2012)와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연구들(문은영·서영주, 2011; 김영옥·김종숙·이선행, 2015; 유혜미·정주영·양유진, 2013; 홍승아·최인희·이아름, 2014; 이선행·이지혜, 2015)로 나뉜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아버지 일·가정양립 저해 요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문화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국가로 장시간근로시간은 아버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는 첫 번째 제약조건이다.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나 많아,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루 법정노동시간 8시간으로 계산할 때, 우리나라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38일이나 더 일한 셈이다(연

합뉴스, 2017). 이와같은 장시간근로의 환경은 저녁이 있는 삶을 저해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식사를 하는 풍경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초중고 재학생 자녀를 둔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식사 불참자 1위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나(동아일보, 2012),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이 힘든 현실을 보여주었다.

절대적인 시간양으로써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용통성이나 정시퇴근도와 같은 질적인 근무여건 또한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가족친화정책의 시행이 아버지 참여를 증가시키고 남성의 일·가정갈등을 감소시켜준다(이숙현·권영인, 2009)는 연구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의 양상과 조건은 아버지참여를 다룬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현아 외(2016)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통해 아버지참여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과 정시퇴근도, 근무용통성과 같은 근무시간관련 변인이 아버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는 주당근로시간과 같은 양적인 근무조건보다는 근무용통성이나 정시퇴근 같은 질적인 근무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제나 정시퇴근제와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현아 외, 2016). 이와 유사하게 조희금(201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전반적인 자녀양육 참여는 퇴근시간이 규칙적이고, 휴가사용이 자유로울수록, 가족친화제도가 많은 직장일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근무시간, 근무용통성, 정시퇴근도와 같은 근무조건이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은 가정에서의 요구와 배우자 조건 등 가정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녀연령과 자녀수는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의 요구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자녀연령과 자녀수가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는 없지만, 가사노동시간이나 자녀돌봄시간 등 아버지참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Coverman(1985)은 미국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수는 취학, 미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Bennett & Baruch(1987)는 자녀의 수가 상호작용시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자녀의 수가 남편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 밝혀졌다(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주은선·김사현·김민성, 2014). 영아의 유무는 가사노동참여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녀의 수는 아버지의 참여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확인하였으며(이수재·이영환, 2007), 미취학자녀의 수가 부부전체의 자녀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남편의 경우 유의미한 돌봄시간의 증가가 없었으며 대부분 여성의 돌봄시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주은선 외, 2014), 한편 자녀의 연령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안수미 외(2013)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평일과 주말 남편의 자녀돌봄 참여가 증가함을 보였다. 가사공유에 있어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대체로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요구반응가능성 가설에 의하면, 맞벌이 가계의 경우 아버지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즉,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맞벌이는 아버지참여를 증가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맞벌이인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비맞벌이인 경우에 비해 더 긴 것을 확인한 연구(배중호, 2015)도 있지만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을 증가시키기보다 부인자신의 자녀양육시간만을 감소시

키거나, 부인의 취업여부와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더 많다(안수미 외, 2013).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일·가정양립지표(통계청, 2015)를 보면, 2014년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40분, 여자 3시간 14분으로 5년 전보다 남자는 3분 증가하고 여자는 6분 감소하였으며, 비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47분으로 맞벌이 가구 남자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6시간 16분으로 맞벌이 가구 여자보다 3시간 2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여부에 따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문지기역할에 대한 연구에 기반할 때, 배우자인 부인의 지지는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아버지의 역할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아버지참여에 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문지기역할에 대한 연구(Allen & Hawkins, 1999; Maurer et al., 2001; McBride et al. 2005) 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Maurer et al.(2001)에 의하면, 부인의 지지에 대한 인식에 의해 남성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아 부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남성의 양육자로서의 정체성 인식이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 아버지의 정체성 인식과 참여 행동 간 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부인의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McBride et al. (2005) 또한 부인의 남편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남편이 부모됨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자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상승함을 밝혔다. 국내의 연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여 아버지참여에 대한 부인의 문지기 역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김낙홍·박영숙, 2016; 조윤진·임인혜, 2016; 황윤하·김희진, 2015). 문지기역할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문열기(gate-opening)와 제한하고 방해하는 문닫기(gate-closing)로 구분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정순심·문혁준, 2019), 어머

니의 문지기역할 중 문열기 행동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문닫기 행동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문지기 역할 중 배우자의 지지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이 자녀연령이나 자녀수, 맞벌이여부, 배우자지지와 같은 가정의 요구와 아버지 본인이 속한 직장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유연성, 정시퇴근문화 등 근무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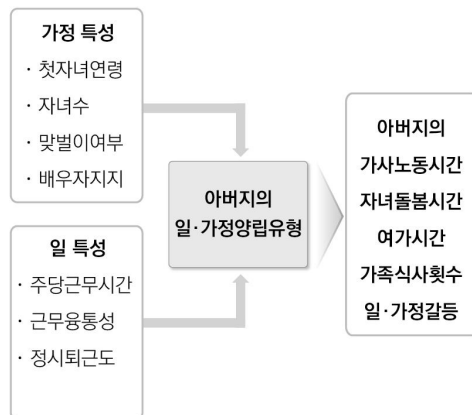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버지역할이 ‘일중심’에서 ‘일·가정 균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고,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을 분석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둘째,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일·가정양립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037명의 아버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녀학령기를 기준으로 유치:초:중:고 자녀를 둔 아버지 비율을 1:2:1:1로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조사는 2018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진행했고, 총 1,173명명의 응답을 받아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총 1,037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아버지 연령구성은 40대가 60.8%, 30대가 22.6% 50대이상인 9.4%이며, 자녀의 학령은 유치원 19.8%, 초등학교가 40.0%,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20.1%를 이루고 있다. 자녀수는 1명이 35.1%, 2명이 57.8%, 3명이상이 7.1%이며, 맞벌이여부에 따른 표본이 각각 49.7%와 50.3%로 고루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들의 주당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가 39.2%, 41시간에서 50시간이 36.0%, 51시간이상의 장시간근로자도 24.8% 포함되었다. 주요 종속변수인 일·가정 양립유형은 일을 더 중시하는 아버지가 10.2%, 가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아버지연령	30대	234	22.6	43.6세
	40대	705	68.0	
	50대 이상	98	9.4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71	6.8	-
	2-3년제 대졸	111	10.7	
	4년제 대졸	667	64.3	
	대학원졸 이상	188	18.1	
월평균 소득	300만원미만	65	6.3	-
	300-499만원	413	39.8	
	500-699만원	322	31.0	
	700만원이상	237	22.9	
자녀학령급	유치원	205	19.8	-
	초등학교	415	40.0	
	중학교	208	20.1	
	고등학교	209	20.1	
자녀수	1명	364	35.1	-
	2명	599	57.8	
	3명이상	74	7.1	
맞벌이여부	맞벌이	515	49.7	-
	비맞벌이	522	50.3	
주당근로시간	40시간 이하	407	39.2	46.9시간
	41시간-50시간	373	36.0	
	51시간이상	257	24.8	
일·가정양립유형	일이 더 중요	106	10.2	-
	가정이 더 중요	373	29.7	
	일과 가정이 모두 중요	257	60.1	

을 더 중시하는 아버지가 29.7% 일과 가정 모두를 중시하는 아버지가 60.1%가 포함되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은 현재 일과 가정생활 중에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일이 더 중요’, ‘가정생활이 더 중요’, ‘일과 가정생활 모두 중요’의 3가지 범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정 특성 변수는 첫째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 맞벌이여부, 배우자지지를 포함한다. 첫째자녀의 연령은 만 나이로 투입하였으며, 자녀수는 첫째자녀부터 막내자녀까지 총 자녀수이며, 맞벌이여부는 부인의 직업유무를 기준으로 부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 맞벌이로 보고 ‘1’로 코딩하고, 직업이 없는 전업주인 경우 외벌이로 보고 ‘0’으로 코딩하였다. 배우자지지도는 Bouchard & Lee(2000)를 참고하여 아버지역할에 대해 부인이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즉, 아버지역할에 대한 부인의 지지는 자율성, 자존감, 유용성의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지원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우선 아버지역할에 대한 자율성(autonomy)은 “나의 배우자는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나의 배우자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격려한다”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아버지역할에 대한 자존감(esteem)은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나의 능력을 신뢰한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양육방식이 좋다고 한다”로 측정되며, 아버지역할에 대한 유용성(availability)은 “나의 배우자는 내가 부모로서 필요로 할 때 항상 옆에 있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부모역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아버지의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8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아버지 일 특성 변수는 주당근무시간과 근무용통

성, 정시퇴근도 3가지를 포함한다. 우선 주당근무시간은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로 질문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근무용통성은 “귀하는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을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 “전혀 조절할 수 없다”에서 “항상 조절할 수 있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시퇴근도는 “귀하는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하시는 편입니까?”에 대해 “항상 정시에 퇴근하지 못한다”에서 “항상 정시에 퇴근한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당근무시간이 양적인 근무조건이라면, 근무용통성과 정시퇴근도는 근무시간의 유연성과 정규성으로 질적인 근무조건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양상은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여가시간, 가족식사횟수, 자녀와 대화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 여가시간은 각각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얼마나 사용하는지 물어보았다. 가사노동시간은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자녀돌봄시간 제외)은 얼마나 됩니까?”로 질문하였고, 자녀돌봄시간은 “귀하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자녀교육 및 양육관련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로, 여가시간은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여가시간은 아버지 스스로가 본인의 시간 사용을 평가한 주관적인 시간사용양으로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시간일지표를 활용하여 조사한 시간양에 비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통해 아버지 스스로 인식하는 본인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가족식사횟수 또한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양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즉, 평소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를 주당 평균 몇 회인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질문한 것으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 각각 0회에서 7회까지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자녀와 대화시간은 “귀하의 하루 평균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로 질문하여 분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양상은 아버지의 일·가정갈등 수준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일·가정갈등은 김혜영 외(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는 직장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나는 업무시간에 쫓겨 가족들과 여가를 보내지 못한다’, ‘나는 직장일에 전념하느라 집에서 소회당하는 느낌이다’, ‘나는 가정일에 신경을 쓰느라 직장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나는 휴일에 해야할 집안일이 부담스럽다’ 등 일과 가정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묻는 9개 문항에 대해 4점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갈등이 큰 것을 의미하며, 일·가정갈등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가정양립유형은 ‘일이 더 중요’, ‘가정이 더 중요’, ‘일과 가정 모두 중요’의 3가지 범주를 가진 변수이므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로지스틱 분석의 확장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인 경우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3가지 범주 중 ‘일이 더 중요’로 참조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른 일·가정양립양상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정특성변수 중에서 첫 자녀연령과 배우자지지도가, 일특성변수 중에서는 주당근로시간과 정시퇴근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와 맞벌이여부, 근무유연성은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일이 더 중요’한 아버지를 참조범주로 하여 가정이 더 중요한 아버지와 일과 가정이 모두 중요한 아버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선 ‘가정이 더 중요’한 아버지는 ‘일이 더 중요’한 아버지보다 첫 자녀연령이 낮고($B=-.142, p<.001$) 배우자지지도가

<표 2>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일이 더 중요 vs 가정이 더 중요			일이 더 중요 vs 일·가정 모두 중요		
		B	Sig.	Exp(B)	B	Sig.	Exp(B)
Intercept		4.270	.001		3.320	.002	
가족 특성	첫자녀연령	-.142	.001	.867	-.100	.001	.904
	자녀수	.241	.225	1.272	.093	.614	1.098
	맞벌이여부(맞벌이=1)	-.170	.470	.843	.186	.391	1.205
	배우자지지도	.468	.008	1.596	.519	.001	1.681
근무 특성	주당근무시간	-.059	.001	.943	-.041	.001	.960
	근무유연성	-.020	.897	1.020	.115	.415	.891
	정시퇴근도	.321	.041	.726	.072	.619	.930
모델적합도		Chi-Square 88.754***					
R-Square		Cox and Snell = .082 Nagelkerke = .098					

* $p<0.05$, ** $p<0.01$, *** $p<0.001$

높고($B=.468, p<.01$), 근무특성상 주당근로시간이 적고($B=-.059, p<.001$), 정시에 퇴근하는($B=.321, p<.05$) 경향이 있었다. 첫 자녀연령이 낮고 배우자가 지지하며, 주당근로시간이 짧고 정시에 퇴근하는 아버지는 ‘일이 더 중요’한 유형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한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일과 가정 모두 중요’한 아버지는 ‘일이 더 중요’한 아버지보다 첫 자녀연령이 어리고($B=-.100, p<.001$) 배우자지지도가 높으며($B=.591, p<.001$), 주당근로시간이 짧은 것($B=-.041,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첫 자녀연령이 낮고 배우자지지도가 높으며, 주당근로시간이 짧은 아버지는 일을 더 중시하기 보다는 일과 가정을 모두 중시하는 유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주당근로시간이 크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앞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데, 일중시형이 51시간으로 가장 길고, 일·가정중시형이 47시간으로 그다음, 가정중시형이 45.5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사후검정결과, 일·가정중시형과

가정중시형은 같은 그룹으로 묶여 일중시형에 비해 주당근로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근무시간이라 할 때,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그 외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여가시간에의 시간배분이 달라지게 된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일·가정양립양상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가족식사횟수, 자녀와 대화시간, 일·가정갈등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가사노동시간은 주중에는 차이가 없었고, 주말에만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중시형 아버지(146분)와 일·가정중시형 아버지(140분)의 가사노동시간이 일중시형 아버지(108분)보다 더 길었다. 사후검정결과는 주당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일·가정중시형과 가정중시형이 같은 수준으로 일중시형 아버지에 비해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을 보여주었다. 자녀돌봄시간은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주중과 주말의 경우 모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중시형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주중 75분, 주말 185분으로 가장 길고, 일·가정중시형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주중 60분, 주말 157분으로 그 다음으로 길고, 일중시형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주중

<표 3>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른 시간배분과 가정생활 특성의 차이

구분	일이 더 중요한 아버지	가정이 더 중요한 아버지	일·가정이 모두 중요한 아버지	평균	F값	
주당근로시간(시간)	50.98(a)	45.46(b)	47.05(b)	47.00	16.605***	
가사노동(분)	주중	83.75	96.35	80.38	85.47	2.496
	주말	108.50(a)	146.23(b)	140.89(b)	139.17	6.366**
자녀돌봄(분)	주중	57.58(a)	74.68(b)	60.29(a)	64.28	7.577***
	주말	128.05(a)	185.06(c)	157.81(b)	162.86	11.231***
여가시간(분)	주중	110.76	99.31	98.08	99.74	1.930
	주말	218.90	194.86	208.31	205.40	2.250
가족식사횟수	아침	1.93(a)	2.60(b)	2.33(a)	2.37	3.941*
	저녁	3.02(a)	4.15(b)	3.87(b)	3.86	13.147***
자녀와 대화시간(분)	28.70(a)	43.42(b)	38.48(b)	38.95	9.512***	
일·가정갈등	2.49(a)	2.15(b)	2.23(b)	2.23	21.627***	

* $p<0.05$, ** $p<0.01$, *** $p<0.001$

57분, 주말 128분으로 가장 짧았다. 사후검정을 해보면 주중 자녀돌봄시간은 가정중시형이 일중시형과 일·가정중시형에 비해 현저히 긴 반면, 주말 자녀돌봄시간은 가정중시형>일·가정중시형>일중시형 순으로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여가시간은 아버지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식사횟수는 가정중시형 아버지의 경우가 아침 주당 2.6회, 저녁 4.15회로 가장 많았고, 일중시형 아버지의 경우가 아침 1.93회, 저녁, 3.02회로 가장 적었다. 사후검정결과는 아침 가족식사횟수는 가정중시형이 일·가정중시형과 일중시형에 비해 많고, 저녁은 가정중시형과 일·가정중시형이 일중시형에 비해 많은 경향을 보여준다.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가정중시형 아버지가 하루 평균 43분, 일·가정중시형 아버지가 38분, 일중시형 아버지가 29분으로 일중시형에 비해 가정중시형과 일·가정중시형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가족식사횟수, 자녀와 대화시간 등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생활양상은 예상대로 가정중시형, 일·가정중시형, 일중시형의 순으로 시간이나 횟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후검정결과를 통해서 보면 가정중시형과 일중시형은 확연히 대비되는 반면 일·가정중시형은 경우에 따라 가정중시형과 한 그룹이 되기도 하고, 일중시형과 한 그룹으로 묶이기도 하였다.

종합해보면, 일중시형 아버지는 직장에서 보내는 근무시간이 길고 가정에서 가족이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대로 가정중시형 아버지는 직장에서 보내는 근무시간이 짧고 가정에서 가사노동이나 자녀를 돌보며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을 알 수 있다. 일·가정중시형 아버지는 근무시간이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중시형 아버지와 가정중시형 아버지의 중간정도로 나타나나, 집단간 차이분석을 통해서 보면 일중시형 보다는 가정중시형에 더 가까운 수준의 일·가정양립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일·가정갈등수준으로도 연결되어 일중시형이 2.49점으로 일·가정갈등수준이 가

장 높고, 일·가정중시형 2.23점, 가정중시형이 2.13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정을 통해 일·가정중시형과 가정중시형에 비해 일중시형의 일·가정갈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버지역할이 ‘일중심’에서 ‘일-가정 균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고,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을 분석해보았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은 가족 요구와 근무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시간배분구조와 일·가정갈등수준이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일·가정양립의 생활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은 첫자녀연령과 배우자지지도와 같은 가정특성과 주당근로시간과 정시퇴근도와 같은 일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중시형 아버지는 일중시형 아버지보다 첫자녀연령이 낮고 배우자지지도가 높았으며, 주당근로시간이 적고, 정시에 퇴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가정중시형 아버지는 일중시형 아버지에게 비해 첫자녀연령이 어리고 배우자지지도가 높으며 주당근무시간이 짧았다. 첫자녀연령이 낮고 배우자지지도가 높으며, 주당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일중시형 보다는 일·가정중시형 아버지에게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일·가정양립양상은 확연히 달랐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주당근로시간은 일중시형이 51시간, 일·가정중시형이 47시간, 가정중시형이 45.5시간으로 기본적 차이를 보였다. 이와같은 근무시간의 차

이를 기반으로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여가시간에의 시간배분도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예상대로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은 가정중시형) 일·가정중시형) 일중시형 순으로 많았다. 가사노동시간은 주말에만 차이를 보인 반면, 자녀돌봄시간은 주중, 주말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사노동은 주말을 기다려 할 수 있지만, 자녀를 돌보는 일은 주중과 주말을 가리고 선택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가족식사횟수와 자녀와의 대화시간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가정중시형) 일·가정중시형) 일중시형 순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른 가정생활양상에 일관성을 더해주었다.

요약하자면, 일중시형 아버지는 직장에서 보내는 근무시간이 길고 가정에서 가족이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대로 가정중시형 아버지는 직장에서 보내는 근무시간이 짧고 가정에서 가사노동이나 자녀를 돌보며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이 특징이다. 일·가정중시형 아버지는 순서상으로는 일중시형과 가정중시형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집단간 차이분석을 통해 보면 일중시형 보다는 가정중시형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일·가정갈등수준을 통해서도 나타나 일중시형이 2.49점, 일·가정중시형 2.23점, 가정중시형이 2.13점의 순으로 높지만, 집단간 차이를 사후분석해보면 일·가정중시형과 가정중시형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 일중시형 아버지가 일중심으로 생활을 구조화하고 있는 만큼 일·가정갈등이 심각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은 가정 특성(어린 자녀, 배우자지지)과 일 특성(근무시간, 정시퇴근)이 상호작용하면서 유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고, 아버지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있고, 다행히 정시퇴근이 가능한 근무여건으로 정상적인 수준의 근무시간이라면, '가정중시형' 아버지에 속할 확률이 커진다. 한편 가정

에 어린 자녀가 있고, 아버지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있고 정시퇴근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니라면, '일과 가정을 모두 중시하는 아버지'유형에 속할 확률이 커진다. 반면, 자녀와 배우자 요인에 의한 가정에서의 요구가 적고 근무시간이 길고 정시퇴근이 어려운 직장환경이라면 '일중시형' 아버지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 요소는 근무시간이다. 근무시간이 길면 가정을 중요시하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근무시간은 아버지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사업장 규모별로 조금씩 달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법정시행일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방안이나 혜택이 있다. 예를들면 2019 가족친화인증심사 지표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시간단축제를 조기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하는 등으로 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이처럼 근무시간단축제도가 정착된다면 그동안 일하는데 할애했던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전환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일하는 기제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아버지도 일과 가정을 함께 양립하며 가족과 함께 하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더욱 커야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드러난 것은 자녀가 어린 경우 자녀양육시간에 대한 가정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최근 남성육아휴직사용자가 늘고있다고는 하지만 육아는 여성이 주책임자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주로 두번째 사용하기 때문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른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그동안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 둘째만 200만원을, 2018년 모든 자녀에 200만원을 적용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자녀에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고용노동부, 2019a). 이처럼 아빠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직장내 분위기나 복귀시 불이익 등을 걱정하여 사용을 꺼리는 것이 아빠들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부인의 지지도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 아버지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아버지의 역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아버지참여에 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문지기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Maurer et al. 2001; McBride et al. 2005; 김낙홍·박영숙, 2016; 조윤진·임인혜, 2016; 황윤하·김희진, 2015).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이 가정중시형 또는 일·가정중시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은 앞선 연구들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현아 외(2017)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아버지프로그램 참여동기가 부인의 권유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통해 부인의 문지기역할(maternal

gatekeeper)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참여를 제한하고 비난하는 문단기보다 지지하고 격려하는 문열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정순심·문혁준(20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은 배우자인 부인의 지지자 역할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른 일·가정양립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전반적으로 아버지역할이 일중심에서 일·가정양립지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일중심으로 구조화된 아버지들의 일·가정갈등수준이 더 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에서 수퍼맨이 될 것을 기대하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아버지가 느끼는 일·가정갈등에 대해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여가시간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의 개인여가시간과 가족여가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직장교육매뉴얼에서는 생활의 실재를 반영하고 또 중요한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의 워라밸에 있어서 성별과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와 무관하게 일과 가정의 조화와 균형 뿐 아니라 일과 가정과 개인생활의 조화와 균형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후 아버지대상 연구에서도 여가시간을 개인여가시간과 가족여가시간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참고문헌

- 1) 고용노동부(2019a).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지원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20)
- 2) 고용노동부(2019b).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 명 돌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78)
- 3) 김낙홍·박영숙(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기분화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5(4), 243-264.
- 4) 김보은·조영일·유지영·최은실·김혜영(2016). 성인기와 노년기별 기혼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6(1), 473-496.
- 5) 김영옥·김중숙·이선행(2015).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6) 김혜영·황정미·선보영·김동기(2008).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7) 동아일보(2012.11.16.). '가족식사 불참자' 1위는 누구? '쌈쓸함 가득' <http://news.donga.com/3/all/20121116/50904492/1#csidx7487eeb19304b6193dd8bffde89402d>
- 8) 문은영·서영주(2011). 서울시 30, 40 대 자녀양육 남성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2011-6, pp.1-14.
- 9)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 10) 배지혜·서혜영·이숙현(2002). 사무직 남성의 일가족갈등 및 가족일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43-64.
- 11) 송혜림(2012). 남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18.
- 12) 안수미·이기영·이승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09-132.
- 13) 양소남(2013). 아버지의 부성경험: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긴장과 갈등. *디지털정책연구*, 11(2), 375-383.
- 14) 여성가족부(2018). 가족친화직장교육 매뉴얼, 일·가정 생활 더붙여, 행복 double-up.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5) 여성가족부(2019). 2019 가족친화인증설명회 자료집, *한국경영인증권*.
- 16) 연합뉴스(2017.8.16). '韓노동시간 OECD2위...獨보다 1달 더 일하고 임금은 70%', (<https://www.yna.co.kr/view/AKR20170815071000002>)
- 17) 유해미·정주영·양유진(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18) 이선행·이지혜(2015).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 일가족양립지원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9) 이수재·이영환(2007).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3), 1226-1242.
- 20)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 21) 이현아(2014).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아버지 학교참여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79-191.
- 22) 이현아(201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61-76.
- 23) 이현아·김선미·이승미(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231-261.
- 24) 이현아·박철·김선미(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

- 구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8.
- 25) 임홍택(2018).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생이 온다. (주)책일북.
- 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
- 27) 정순심 · 문혁준(2019). 아버지가 인식한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1(1), 71-94.
- 28) 조성호 · 김지민(2018). 일생활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배분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9) 조윤진 · 임인혜(2016). 한국판 어머니·아버지 역할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 69-100.
- 30) 조희금(2016).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49-68.
- 31) 주은선 · 김사현 · 김민성(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연구, 30(2), 367-400.
- 32) 중앙일보(2018.3.8.). 직장 선택 조건 1위는 '워라벨'...문제는 '야근'.
<https://news.joins.com/article/22423418>
- 33) 채화영(2012),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4) 통계청(2015). 2015 일·가정양립 지표. 통계청
- 35) 통계청(2016).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 통계청
- 36) 통계청(2017). 2017 일·가정양립 지표. 통계청
- 37) 홍승아 · 최인희 · 이아름(2014). 남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8) 황윤하 · 김희진(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부부의 인식과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0(2), 55-73.
- 39)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212.
- 40)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41) Bouchard, G., & Lee, C. M. (2000). The marital contex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the role of partner support.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1-2), 37-53.
- 42)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43) Lee, H. (2019).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athers' School Involve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 839-850.
<https://doi.org/10.1007/s10826-018-01307-2>
- 44) Maurer, T. W., Pleck, J. H., & Rane, T. R.(2001), Parental identity and reflected-appraisals: Measurement and gender dynam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309-321.
- 45) McBride, B. A., Brown, G. L., Bost, K. K., Shin, N., Vaughn, B., & Korth, B.(2005), Paternal identity,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54(3), 360-372.

- 투 고 일 : 2019년 06월 15일
- 심 사 일 : 2019년 07월 01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8월 13일